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2013 Sep; 11(9): 55-65

창업의지와 기업가정신이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

이미자*, 김중규**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정보경영학과*, 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창업학과**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Success

Mi-Ja Lee*, Jung-Gyu Kim**
Dept. of Information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Dept. of Entrepreneurship, Graduate School of Global Entrepreneurship, Hoseo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창업의지와 기업가정신이 창업성공에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창업대학원생, 소상공인창업 교육생,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수집하였고, 창업의지의 특성과 역량을 중심으로 하여 선행연구와 기존문헌을 토대로 연구하였다. 창업의지의 특성요인으로서 창업의지, 기업가 정신, 창업성공, 교육, 멘토의 결정요인을 도출하고 이들 요인과 창업성공 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 검증하는 연구를 목적으로 두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의지가 창업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창업방법 과 창업능력 변수가 유의하였다. 둘째, 기업가정신이 창업성공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기업의지 와 외부요인, 내부요인의 변수가 유의하였다. 셋째, 창업교육이 창업성공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공 재교육 이 가장 큰 영향으로 나타나 창업 후에도 꾸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넷째, 창업멘토가 창업성공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창업의 실무적인 멘토가 가장 큰 영향이 있었으며, 창업의 성공적인 멘토, 사회적으로 성공한 멘토 순으로 나왔고 업종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사업을 더 멀리보고 성장할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성격은 긍정적인 성격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 창업을 하는 사람들의 성격은 긍정적인 성격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창업의지, 기업가 정신, 창업교육, 창업멘토, 창업성공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orrelations between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success. For that purpose, the study carried out a survey among the students of Graduate School of Business & Entrepreneurship, the students of small business start-up education, and general people and reviewed the previous studies and literature with a focus on the characteristics and capabilitie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 investigator identified the characteristic factor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includ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success, education, and mentor, set a research model and hypothesis for their relations with entrepreneurial success, and empirically analyzed and tested them.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entrepreneurial methods and abilities of the variable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turned out to have significant impacts on entrepreneurial success. Second, corporation determination, external factor, and internal factor of the variables of entrepreneurship turned out to have significant effects on entrepreneurial success. Third, re-education after success turned out to be the most influential entrepreneurial education factor on entrepreneurial success, which points to a need for constant education after setting up a business. Fourth, practical entrepreneurial mentors had the greatest influences on entrepreneurial success, being followed by successful entrepreneurial mentors and socially successful mentors in the order. One can have a vision to see a further future of his or her business and promote its growth by forming relationships with those who have more knowledge about the line of business and richer experiences in the field. The subjects overwhelmingly had a positive personality, which suggests that those who try to start a business tend to be positive and considerate of others.

Key Words : entrepreneurial intention,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education, entrepreneurial mentor, entrepreneurial success

Received 1 September 2013, Revised 20 September 2013
Accepted 20 September 2013
Corresponding Author: Jung-Gyu Kim (Global Entrepreneurship, Hoseo University)
Email: leemeem@naver.com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t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창업이란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창업」이라는 용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나라를 처음으로 세움. 사업의 기초를 세우고 처음으로 시작하고, 사업의 기초를 닦음 등으로 표시하고 있다. 좁은 의미로서의 창업이란, 제품 또는 용역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기업조직을 설립하는 행위를 말한다.

창업의 시작은 완벽한 준비와 대비를 전제로 해야 하고 돈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 우리나라 상황을 보았을 때 경제위기의 여파로 인해 조기 퇴직 후에 창업을 하는 경향이 많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창업을 해서 대박의 꿈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누구나 창업을 하면 무조건 돈을 벌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게 현실이다.

기업의 창업은 개인적인 부를 창출하기 위한 활동이지만, 그것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중요성을 가진다. 창업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은 수입의 극대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매출과 수익에 대한 상관관계 또는 경제적인 여건을 꼼꼼히 따져보기 전에도 막연한 상상 속에 소위 대박이라는 꿈을 꾼다.

창업교육에 대한 정의는 “미래의 창업자를 위한 창업 관련 지식, 기능, 태도 등 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뿐 아니라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피고용자 입장에서 직무 수행에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포괄적인 직무훈련도 포함한다고 규정 하였다. 창업교육은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창업 관련 지식, 기능, 태도 등을 가르치는 교육이 있으며, 이밖에 창업교육에 대해 백과사전, 인터넷 포털 등을 검색해도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향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창업구상단계로는 창업자 분석, 사업 아이템탐색, 특허검색, 소비자 및 시장을 검토하고, 창업계획단계에서 아이템선정, 사업타당성 분석,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며, 사업실행단계로 회사설립, 공장설립, 조직 및 인력확보, 경영관리의 프로세스 단계별 순서대로 설정하여 계획한다. 현재 기존창업자의 약 70%가 3년 이내 자연 도태되고 있으며 성공적인 기업 또한 성장 단계별로 애로사항으로 실패율이 높아지고 있다.

1.1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고령화[1]에 따른 사회적 부담도 빠른 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생산가능 인구 중 60~64세 인구의 비중이 2000년 5.4%에서 2007년과 2010년에는 각각 5.6%, 6.2%로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경제발전의 밑거름이었던 근면, 높은 저축률 등이 급격히 소멸되어 가고 소득이상으로 과도하게 소비하면서 가계 빚에 허덕이면서 최근 창업 붐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현대 경제연구원 김광석 선임연구원은 "베이비 붐 세대의 창업은 2013~2014년에 절정에 이를 것"이라며 "내수침체와 소비부진의 악순환으로 중산층 붕괴와 양극화 가속 등 심각한 사회경제 구조적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년, 시니어 구분 없이 너도나도 창업에 도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도내 창업자의 46.6%가 3개월 미만의 창업 준비과정 을 거쳤으며 1년 미만이 40%인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창업자들이 포화된 시장에 계속 진입하는 것이 다산다사 현상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창업자들이지만 이들에 대한 창업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창업시장은 과다경쟁 상태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꿈꾸는 성공창업의 장미 빛 미래와는 달리 성공한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정부에서는 “일자리가 가장 큰 복지”라는 명제 아래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창업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창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함은 물론 그로인한 고용창출은 실업률을 줄이고 산업기반을 튼튼히 하여 경제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정부는 실업해소의 돌파구를 찾는 길이 창업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창업에 대한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2]. 그렇다면 창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성공하는 창업자와 실패하는 창업자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본다면 현재의 창업자들이 실제로 성공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들을 분석하여 봄으로써 앞으로 지속적으로 창업을 하게 될 창업자들에게 좀 더 이러한 요인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연구를 하여 조금

이라도 실패를 줄이고 성공률을 1%라도 제고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의도와 앞으로 창업자들의 성공프로세스를 연구해보고자 하는 의도에 앞서 성공에 관한 요인들을 미리 연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하여 연구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1.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창업의지와 기업가정신이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논문작성에 필요한 이론적인 부분은 기존의 선행 연구자료, 조사문헌, 중소기업 청 등, 각종 조사보고서를 정리하였고, 표본추출은 2012년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창업대학원생, 소상공인창업교육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설문에 성실하게 응답한 창업대학원생 70부, 소상공인창업교육자 70부, 일반인 70부를 총 210부를 채택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위에서 밝힌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의 구성을 살펴보면 모두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과 목적, 연구의 방법 및 구성을 살펴보고, 제2장 창업성공요인 선행 연구로는 창업자의 역량에서, 창업절차, 창업의 자세 및 준비, 창의성이 기업에 주는 메시지, 창의성의 선행요인, 창의적 인재정의를 살펴보고, 창업자의 기업가정신으로는 기업가정신의 개념, 기업가정신의 정의, 기업가정신의 역할, 기업가과 관리자를 살펴보았다. 창업의 기본요소로, 창업자, 창업 아이템, 입지선정, 창업자금 을 개별적으로 살펴보고, 창업활동으로 창업성공 우리나라의 주요창업 활동, 우리나라 신설법인 동향, 한국기업의 Open & Global R&D의 유형별 현황 을 살펴보았으며, 다음으로 사업 중단(폐업)이유를 알아보았다. 제3장에서는 연구모형설정 및 가설설정으로 연구모형, 자료수집, 설문지를 구성하고, 연구가설을 설정 하였다. 제4장에서 연구 결과 및 논의로는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빈도분석,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기술통계량 분석을 하였다. 제5장 결론 및 제언 에서는 연구결과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론 및 실무적 시사점 과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2. 창업성공요인 선행 연구

2.1 창업자의 역량

창업을 하기위해서는 최우선 창업자의 역량이 요구된다. 본인이 잘 알 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자신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기에 적합한 새로운 유망 아이템을 찾아 이를 차별화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공적인 창업자 에게 서 보이는 공통적인 개인적 특성으로서 성별, 연령, 학력, 경험등과 같은 다양한 특성들을 다루어 왔다.(Begley & Boyd[13]; Bird[14]; Box, White & Barr[15]; Gartner[16])Vesper[17]; 박동수[3]; 정성한·김해룡[4] 황보윤[5]). 우리가 창업성공에 이르기 위해서는 다양한 능력이 요구된다. 자영업 실패로 인해 조기폐업과 수익률 부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현실이다. 소상공인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인 이하 사업장이 적자 26.8%에 이르고 월평균 100만원도 안 되는 사업장이 57.6%를 차지했다. 최근 50대 이상 부채가 도.소매,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고 대출은 17.5%나 급증했다. 퇴직 후 소매업에 뛰어든 은퇴자들의 빚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창업자가 성공창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단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사업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말고 결단을 내리고 또한 신속하게 행동에 옮겨야 하고, 기회가 오면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강한 인내력을 발휘해야 한다. 인내력을 가지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많다. 창업자에게는 원칙에 충실하고 끈기 있게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인내력이 필요하다.

셋째, 사람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력이 요구된다. 기회를 창출해내고 솔선수범해야 하며 자신 있게 설득할 줄 알아야 한다. 본인의 성격이 설득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반드시 고쳐서 지도력을 키워야 한다.

넷째, 사업에 몰입하는 집중력이 필요하다. 아무리 작은 사업이라도 집중해서 몰입하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성공창업을 꿈꾸고 있다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사업에 몰입해야 한다.

다섯째, 사업에 대하여 끈임 없는 학습능력이 요구된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새로

운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성공창업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시대의 흐름을 읽고 고객이나 시장의 흐름이나 창업하고자 하는 부분의 통찰력을 가지고 사업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여 자기사업에 관한 한 최고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창업[6]은 기존의 방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Schumpeter 1934)에 의해 정의된 바 있다. 창업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정의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1〉 The definition of entrepreneurship

doctor	The definition of entrepreneurship
Timmons 1985	Entrepreneurs, Resource Needs a chance recognize the element, the establishment of
Hisrch & Brush 1985	Risk-taking, and time and Valuable effort. To create something new. Enjoyment of the rewards and satisfaction
American Entrepreneurs Association 1986	Adventurous spirit
Gartner 1990	Innovation, Distinctiveness, create value, Entrepreneur, Creation of organizations, Pursuit of profit. Entrepreneurial Growth, Executives themes found
Schumpeter 1934	The power of creative destruction
Longenecker et.,al 1997	Starting a new business, Acquired the business of others.
Yiseokgyu 1997	The act established a new organization.

자료출처: 김 홍, 벤처창업연구를 참고로 표를 저자가 정리

2.2 창업자의 기업가 정신

2011년 그리스와 이탈리아를[7] 중심으로 유럽경제가 위기를 겪는 가운데, 미국경제는 높은 기업가정신 수준을 보여주며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중국 경제는 경착륙하지 않았으며, 미국 경제는 더불딥(double dip) 침체를 벗어낫다. 2011년 한국경제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한국 경제는 투자·소비·수출 등 각종 실물경제 지표들이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수출은 전년 대비 증가추세에 있다. 대부분의 정책 결정자들과 학자들의 창업활동은 사회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생각한다. 창업은 새로운 경제를 도입함으로써 생산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 창업은 국가경제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촉매제로서 역할을 한다. 성공한 기업가와 실패한 기업가의 차이는 김성수[8] 경희대 교수는 “성공한 창업자의 기업가정신” 에서 “정신의 차이” 라고 규정한다.

성공한 사업가는 도전과 개척정신, 근검절약과 신용제일주의, 신념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반면 실패한 사업가는 탐욕과 낭비, 불성실과 신용결여, 피해망상과 인내력 부족, 도전과 개척정신 및 신념의 결여를 특징으로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청의 조사에 따르면 약 10 명이 창업을 했을 경우, 2~3 명 정도만 사업에 성공하고 나머지 7~8 명 정도는 실패한다고 한다.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이 바로 창업성공이며 이러한 창업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기업가 정신이다.

2.3 기업가정신의 정의

기업가 정신이란 현재 통제할 수 있는 자원 여부에 상관없이 기회를 포착하고 추구하는 것으로 인간의 창조적 행동을 의미하고 있으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개인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파악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기업가정신[9]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이후부터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 기업가정신의 관심거리는 경제발전, 직무창출, 기술변화, 개인적인 부의창출, 개인기업의 성과 등과 연계를 갖고 있다(Amit, Glosten, & Muller, 1990). 기업가정신은 경제주기 상에서 경기하락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것은 ‘신 결합’으로 정의되는 기술혁신을 진작함으로서 가능한 것이라고 했으며 (Schumpeter 1934), 슘페터이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 기업가정신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사용되어 왔다(Low and Mac Millan, pp. 140-141, 1988). 예를 들어 기업가정신을 새로운 조합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했으며, (Knight 1921)는 미래를 성공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했다.

기업가정신은 경쟁자들에 비해 보다 현명하고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했다. 이처럼 기업가정신에 대한 공통의 정의가 없기 때문에 실증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 또한 각 연구자들 마다 기업가정신의 단편적인 면만을 고찰하기 때문에 전체 그림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기업가정신은 변화경영, 혁신, 기술적・환경적. 격동성, 신제품개발 중소기업경영, 개인주의

와 산업진화 등 다양한 개념들과 중복되면서 같이 얽혀 있어 무엇이 기업가정신의 본질인지 알기 어렵다. 더욱이 경제학, 사회학, 역사학, 심리학 그리고 인류학 등 학자들의 학문분야에 따라서 또한 그들이 진행하고 있는 연구 분야에 따라서 기업가정신을 달리 정의하고 있는 문제점도 있다(Low and Mac Millan, p.141, 1988). 이러한 문제점은 동시에 현상의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개념적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2.4 기업가정신의 역할[10]

기업가 정신은 신속한 환경 대응과 혁신적 행동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욱 증대하고 있으며 또한 기업가 정신은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제품과 서비스로 상용화함으로써 과학과 산업을 연결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기업가적 행위는 생산 활동에서 마케팅 및 재무관리의 전반에 걸친 기업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등 국가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기업가 정신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환경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능력을 겸비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힘이 있어야 한다. 둘째, 위험을 무릅쓰고 과감한 투자를 행하는 도전력이 있어야 하며 도전적인 창업가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보다 혁신적인 신제품을 개발하여 소비자의 까다로운 욕루를 충족시키는 고객 지향적인 제품을 생산하여 기업경쟁력을 높이는데 있다. 셋째, 혁신력으로 기업의 위협요소를 발전기회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가져야 하며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요소 중 특히 위협적인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오히려 발전의 기회로 삼는 능력을 말한다. 넷째, 장기적 사고력으로 단기 업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비전을 제시하여 종업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2.5 창업성공[11]

창업성공에 대한 측정으로는 장기적 성공과 단기적 성공으로 나눌 수 있으며 지금까지의 창업자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단기적 성공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한 Zirger와 (Maidique 1990)도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로 창업성공을 구분하며 재무적 성과는 쉽게 확인될 수 있지만 비재무적 성과는 종업원 수의 증가와 사회에의 기여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기업 성과와 관련된 연구 중에서는 과거의 재무성과 위주의 개별척도에 한정된 성과지표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부프로세스 성과 혁신 및 학습 성과, 고객만족성과, 재무성과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은 실무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편이다.

(Banker 등 2000)은 고객만족 및 재무 성과와의 관계는 어느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와 함께 각 개념과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주장도 언급되고 있다. 한편 (Fornell 1992)은 고객들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만족을 하는 경우에 기업전체의 입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성과에 대하여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고객이 높은 만족수준을 보이는 경우에 기업은 저원가의 실현, 실패비용의 감소, 신규고객 유인비용의 감소, 재 구매증가 등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재무성과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2.6 한국기업의 성공사례 현대모비스

국내 최대이며 세계 10위의 자동차부품기업 인 현대모비스는 2010년 13조 7,000억 원의 매출을 올려 세계 10위의 자동차부품업체로 부상하였다.

〈Table 2〉 Hyundai Mobis Performance by Business (단위 : 억 원, %)

Division		2009 years	2010years
Assembly Parts business	Sales	71,939	98,442
	Profit (Profit)	5,518 (7.7)	8,635 (8.8)
For repair Parts business	Sales	34.91	38,515
	Profit (Profit)	8,705 (25.3)	9,398 (24.4)
Total	Sales	106,330	136,957
	Profit (Profit)	14,223 (13.4)	18,033 (13.2)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한국기업의 Open & Global R&D 추진현황 p.40

2.7 사업 중단(폐업)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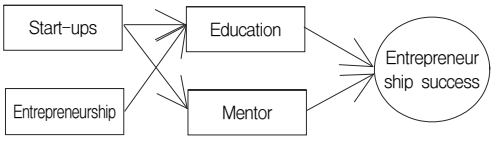
폐업기업의[12] 비중은 2001년 15.6%에서 2007년 9.0%로 감소하였으나 최근 3년 (2008~2010)년간 완만하게 증가하였다. 폐업기업 수는 변동 폭이 큰 반면 창업기업 수는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작고 폐업기업수와 특별

한 관계가 없음이 나타났다. 다만, 창업지원정책 시행시기와 중복되는 기간인 2001~2004년, 2009~2010년에는 폐업과 창업이 같은 방향의 움직임을 나타냈다. 창업지원정책으로 창업이 많으면(적으면) 폐업이 많게(적게) 나타나므로 폐업기업에 관한 정밀실태조사를 통해 폐업의 원인을 파악함과 아울러 폐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연구모형설정 및 가설설정

3.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창업의지와 기업가정신이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창업의지가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교육은 매개역할 을 할 것이다. 창업의지가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멘토는 매개역할 을 할 것이다. 기업가정신이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교육은 매개역할 을 할 것이다. 기업가정신이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멘토는 할을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모형 설정을 위해 관련 연구모형들을 먼저 살펴본 다음 본 연구의 모형을 제시하기로 한다.



[Fig. 1] Research Model

3.2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창업 대학원생, 소상공인창업교육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치화 하여 흔히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정량조사를 하였고, 조사기간은 2012년 9월25일부터 10월 24일까지였으며, 자료수집 방법은 마케팅에 흔히 사용하는 서베이법(survey method)으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들과의 면담 또는 우편을 이용하여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총 230부에서 결측값이 있는 20부를 제외한, 창업대학원생 70명, 소상공인창업교육생 70명, 일반인 70명, 총 210명을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3.3 설문의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내용은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추출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총 5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야별 설문지 구성을 보면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야를 제외하고는 전부 리커트(Liert) 5점 척도의 문항을 설정하였다.

〈Table 3〉 Structure of the questionnaire (N=210)

Domain	Contents	Number of items
Think of entrepreneurship	Establishment of charm, Entrepreneurship success, Sense of the numbers and money, How to entrepreneurship skills, my business, New challenges	7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s, Establishment of an entrepreneur, Abandon the new opportunities, Creativity, adventurous, Positive thinking	7
Entrepreneurship success	Items, Accuracy of expression Favorite thing, Siting, Commercial Area, key money, Funds, Loan establishment, Establish a project, Prepare the establishment period, enough experience, No need to prepare, leaders star	13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blems of teaching methods, education practice, education needs, Education helps?, establishment of a business success in education, Successful retraining	7
Start-up Mentor	Think about the mentor, establishment of a business success mentor, Theoretical Mentor, Practice mentor, Social Mentor, Mentor start-up funding, No mentor	7
General information	Gender, age, last school, Marital Status, Lives, industry of start, start-up counseling?, start-up Items, Motivated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blems of education, recognize for entrepreneurs, Success Mentor, personality of respondents	13

4. 연구결과 논의

4.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의 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학력, 결혼, 거주지, 창업업종, 창업상담, 업종경력, 교육동기, 교육문제, 창업가 인식, 창업 멘토, 마지막으로 성격을 빈도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Table 4>과 같이 남성이 131명(62.4%)으로 여성 79(37.6%)보다 많았고, 연령은 40~49세가 76명(36.2%) 이었고, 50~59세 58명(27.6%), 30~39세 54명(25.7%), 10~29세 19명(9.0%), 60세 이상 3명(1.4%) 이었다.

〈Table 4〉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210)

Categories		Category	how often (Persons)	(%)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man	131	62.4
		Woman	79	37.6
	age	10to29 years	18	9
		30to39 years	51	25.7
		40to49 years	76	36.2
		50to59 years	58	27.6
		Over 60 years	3	1.4

4.2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학력은 대학원 82명(39%)로 가장 많았고 고졸이하 49명(23.3%), 대졸 45명(21.4%), 전문대졸 30명(14.3%),기타 4명(1.9%)로 이었으며, 결혼여부는 기혼 157명(74.8%), 미혼 53명(25.2%)로 나타났다. 거주지는 경기도 127명(60.5%)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서울 60명(28.6%), 기타 23명(11%)순 이었으며, 창업업종은 서비스업이 115명(54.8%)로 가장 많았고, 숙박 및 음식점27명(12.9%), 도, 소매업 25명(11.9%) 업과 기타 25명(11.9%)로 같이 나타났으며, 제조업 18명(8.6%)로 가장 낮았다. 창업상담은 아니요 132명(62.9%)로 많았고, 예 77명(36.7%)로 창업상담을 받아본 사람들보다 창업상담을 받지 않은 사람이 월등히 많았다. 업종경력은 없음이 72명(34.3%)으로 가장 많았고, 5년 이상 54명(25.7%), 1년 미만 39명(18.6%), 3년 미만 35명(16.7%), 5년 미만 10명(4.8%)로 이었다. 교육 동기는 창업성공을 위해서가 77명(36.7%), 정보습득 54명(25.7%), 창업자금 44명(21%), 아이템 선정 20명(9.5%), 기타 15명(7.1)으로 기타에서는 인맥을 위해서 교육을 받는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교육의 문제점으로는 교육 컨텐츠가 66명(31.4%)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창업방법 63명(30%), 교육방법 32명(15.2%), 강의자의 교육역량 25명(11.9%), 기타 24명(11.4%)순으로 기타에서는 교육시간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창업가의 인식으로는 다소 긍정적 93명(44.3%)로 가장 많았고, 보통 55명(26.2%), 매우 긍정적 47명(22.4%), 다소 부정적 12명(5.7%), 매우 부정적 3명(1.4%) 이었다. 창업 시 멘토에 대한 생각으로는 실무적으로 훌륭한 멘토 158명(38.7%)로 가장 많았고, 창업에 성공한 멘토 82명(20.1%)로 두 번째이고, 창업지원금에 대해 잘 아는 멘토 64명(15.7%), 처음부터 끝까지 다해주는 멘토 42명(10.3%), 사회적으로 훌륭한 멘토 41명(10%), 이론적으로 훌륭한 멘토 17명(4.2%)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격으로는 긍정적인 편 134명(32.8%)가 가장 많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79명(19.3%)이 두 번째로 나타났고, 도전적인 편 62명(15.2%)과 소심한 편 62명(15.2%)이 세 번째로 나타났다.

〈Table 5〉 Structure of the questionnaire

(N=210)

Categories		Category	how often (Persons)	(%)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49	23.3
		College graduates	30	14.3
		Graduates	45	21.4
		Graduate school	82	39
		Others	4	1.9
	marriage	Married	157	74.8
		unmarried	53	25.2
	Lives	Seoul	60	28.6
		Gyeonggi-do	127	60.5
		Others	25	11.9
	Type of establishment	manufacturers	18	8.6
		Also, retailers	25	11.9
		your stay and restaurants	27	12.9
		service sector	115	54.8
		Others	25	11.9
	Establishment of consultation	yes	77	36.7
		No	132	62.9
	Sector Career	None	72	34.3
		Less than 1 year	39	18.6
		Less than 3 years	35	16.7
		Less than 5 years	10	4.8

		More than 5 years	54	25.7
	Motivation Education	Start-up funding	44	21.0
		Information acquisition	54	25.7
		Selected items	20	9.5
		For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77	36.7
		Others	15	7.1
	Educational problems	Educational content	66	31.4
		Teaching methods	32	15.2
		Start-up method	63	30.0
		Competence of the teaching	25	11.9
		Others	24	11.4
	Entrepreneurs recognize	Very negative	3	1.4
		Somewhat negative	12	5.7
		normal	55	26.2
		Slightly positive	93	44.3
		Very positive	47	22.4
	Start-up Mentor	A total of Mentor	42	10.3
		Establishment success mentor	82	20.1
		Good theoretical	17	4.2
		Good practice	158	38.7
		Social wonderful	41	10.0
		Grants Mentor	64	15.7
		I'm not sure	4	1.0
	Personality	The positive side	134	32.8
		Optimistic side	46	11.2
		Challenging service	62	15.2
		Timid side	37	9.0
		Impossible service	42	10.3
		Care for others.	79	19.3
		I'm not sure	9	2.2

4.3 빈도분석

〈Table 6〉 Establishment of the degree of attraction

		Frequency	Percent	Effective Percent	Cumulative Percent
Effect	Not at all	1	.5	.5	.5
ive	Then just	11	5.2	5.2	5.7
	Is usual	35	16.7	16.7	22.4
	Yes	104	49.5	49.5	71.9
	Very much so	59	28.1	28.1	100.0
	TOTAL	210	100.0	100.0	

4.4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의 기준으로는 Cronbach'a 계수로 판단하였다. Cronbach의 알파 계수는 창업의지 .804이고 7항목이고, 기업가정신 .593이고 7항목이며, 창업성공 .667이고 13항목이며 멘토는 .793이고 7항목이며 교육이 .748. 이고 7항목이다. 아래 분석결과는 모두 0.5이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였고 <Table 7>과 같이 분석되어 측정의 신뢰성은 담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Table 7〉 Reliability Analysis

(N=210)

Question	Cronbach'a	Number of items
Start-ups	.804	7
Entrepreneurship	.593	7
Entrepreneurship success	.667	13
Mentor	.793	7
Education	.748	7

4.5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는 단순상관관계 분석으로 창업의지에서는 창업방법과 창업능력의 만족도의 상관이 .510인 것으로 나타나 창업방법을 아는 것이 창업성공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의확률<0.5) 창업능력과 기업의지에 상관은 .594 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정신으로는 기업의지와 창업능력의 상관이 .594 인 것으로, 외부요인과 기업의지는 .550으로 나타났으며. 내부요인과 창업능력은 .454로 나타났다. 창업성공 으로는 조직와 내부요인의 상관은 .455으로 나타났으며, 계획과 성공의 상관은 .504으로 나타났고, 자금과 성공의 상관은 .344으로 계획과 성공의 상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6 기술통계량

표본의 조사대상자들의 응답결과를 각 변인별로 나누어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8〉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N:210) 유효:210 결측값: 0

Factors people	Question	Avg Normal Error	Min	Maximum	Avg	Standard deviation	Kurtosis
Questi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059	1	5	3.53	0.848	.381
	Education	.068	1	5	3.06	0.986	-.060

	The problem						
	Educational practice	.059	1	5	3.66	0.85	.462
	Training needs	.057	1	5	3.94	0.819	.866
	Education for help	.057	1	5	3.85	0.82	.866
	Educational success	.066	1	5	3.5	0.96	-.094
	Retraining Success	.053	1	5	4.01	0.767	1.155
Mentor	I think Mentor	.063	1	5	3.56	0.906	.051
	Successful Mentor	.057	1	5	3.83	0.822	1.832
	Theory mentor	.067	1	5	3.42	0.976	-.427
	Practice mentor	.052	1	5	3.96	0.76	1.044
	Social Mentor	.060	1	5	3.74	0.877	.398
	Mentor Grant	.061	1	5	3.5	0.887	-.328
	No need to mentor	.084	1	5	2.12	1.212	-.644

5. 결론 및 제언

5.1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창업자들의 성공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창업자들이 좀 더 중시해야할 요인들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로 대상자들의 업종은 서비스업이 가장 많았고, 창업상담은 받아본 사람보다 받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 현실은 창업자들이 전문가에게 상담하기 보다는 혼자 결정해서 창업하는 경향이 더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창업에 대한 업종 경력이 5 년 이상이 제일 많았으나 미세한 차이를 보였다. 교육 동기는 창업성공을 위해서가 제일 많이 나왔고, 정보습득, 창업자금, 아이템 선정 순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창업교육에 있어서 가장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육컨텐츠 와 창업방법으로 나와 이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었고, 창업가의 인식은 다소 긍정적이 많아 이는 시대적인 작용이 창업 붐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멘토로 인해 성공한 삶을 인도하여 안정된 길을 갈 수 있듯이 창업에 있어서도 멘토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무적인 멘토가 필요로 함을 알 수 있었고, 창업에 성공한 멘토,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잘 아는 멘토 도 많이 필요로 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성격은 긍정적인 성격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 창업을 하는 사람들의 성격은 긍정적인 성격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멘토 들은 다른 기업가들이거나 사업의 시작과 성장의 비결을 아는 전문가들이다. 멘토 를 찾는 것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하다.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멘토가 있으며, 한명, 또는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필요한 분야별로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다.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꼭 새로운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가장 좋은 성공의 기회를 제시하는 것은 대부분 단순하고 평범한 생각들이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창업자들이 좀 더 유념하여 창업에 임한다면 조금이라도 성공률을 제고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5.2 시사점

창업이란 서론에서 밝혔듯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다. 현재 창업교육에 대해 교육을 하는 곳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무작정 창업을 해서 실패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가 국가경제 까지 미치고 있다. 처음부터 크게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작게 시작하고 새로운 분야의 창업을 하기까지 준비하는 기간을 약 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사업은 교육과정을 통하여 최단기간 효율적인 사업마인드를 기를 수 있고, 아이템 분야에서는 경험이 꼭 필요하다.

또한, 지역경제의 토대로서 곳곳에 창업을 도와주는 소상공인 센터는 창업촉진과 발전을 통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산업간 균형발전에 실핏줄과 같은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 활성화는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증대를 위한 또 다른 강력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 밖에도 창업컨설팅을 도와주는 기관도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각 대학교 와 대학원도 창업에 대한 많은 학과가 개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창업을 해서 금방 벼락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기업의 창업은 개인적인 부를 창출하기 위한 활동이지만, 그것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으로도 밀접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창업을 하려고 준비한다면 하고자 하는 사업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기존의 아이템을 탐색하여 사업아이템을 선택하고 먼저는 특허검색을 해야 한다. 이는 후일에 법적인 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아이템을 찾아서 소비자 특성과 미래시장을 검토하여 아이템 정보를 3~5개정도 수집하여 최종적으로 아이템을 선정하여야 한다. 아이템이 선정되었으면 기초자료조사, 사업수행능력, 시장성, 기술성, 수익성 및 경제성 등으로 사업타당성 분석을 하고, 사업목적 및 방향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회사는 법인으로 설립할 것인지 개인으로 설립할 것인지 정하여 사업자등록과 사업, 인허가 부분을 꼼꼼히 살펴야 하고 이에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이제는 국민의 창업의욕 고취를 통한 창업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본인의 기업가정신과 경영마인드 함양, 그리고 창업역량의 구축과 최적의 아이템으로 최적의 입지에서 최적의 자금과 준비기간을 통하여 창업성공에 이르게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어느 하나도 소홀하게 다룰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5.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에서는 창업성공에 초점을 맞추어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았지만 창업자들의 창업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나며 업종별로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 대상인 창업자들의 직종, 직무를 분야별로 세분화하지 않고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명 창업자의 현 직무와 직종에 따라 그리고 창업의지에 따라 창업성공에 차이가 날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구분 없이 불특정 다수를 포괄적으로 접근하여 분석하였다는 것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창업자의 관심 분야와 직무, 직종에 따른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파악하는 세부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으로,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각 변수 값의 비중이나 영향력에도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변수 값도 차이가 분명 있을 것이다. 또한 이에 따른 영향력의 차별화로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인구학적 특성이 고려된 분석을 통하여 창업성공 방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 본 연구에서 고려한 종속변수이면서 독립변수인 매개변수의 교육과 멘토가 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멘토의 영향력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추론하건데 이는 교육의 항목분석을 최소화한 결과로 예측되어진다. 향후 연구에서는 가능한 멘토의 기능적 부분도 포함되어 항목의 변별성과 이해성을 확보하여 동 효과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Sun- Bong Yun, SERI, Capita income to $ 20,000 the way-summary report, p.10~11, 2004.

[2] Jung-Ki Park, An Empirical Study on the Success Factors of a Small Business Starting-up, Dong-eui University Doctorate, p.19, 2002.

[3] Dong-Sui Park, “Start-up business owners,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business performance of relevant” Seoul National University Management Research Center Management University Business Journal, 34, 3, pp.95-115, 2000.

[4] Sung-Han Jeong·Hae-Ryong Kim , “An Exploratory Study on Success Factors in Small Business Startups”, Venture Management Studies Vol,4, No.2. p.4, 2001.

[5] Hwangbo Yun, “Factors on Small Service Busines Performance”, Hoseo Graduate School of Venture, Doctoral Dissertation, p18, 2009.

[6] Hing Kim, The Entrepreneurial Factor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on Student, Vol.7 No.1, 2012.

[7] Seong-Sik Ban, Sang-Gu Seo, Gyeong-Mo Song, Dong-Hwan Jo, Jong-Hae Bak, Min-Seok Cha, GEM Korea 2011 Report Korean Ver_bahn,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2012.

[8] Seong-Su Gim, 'The entrepreneurial spirit of the founder of a successful ', Managers move the world. (Three hundred and four), Professor, Kyung Hee University, 2007.
[9] Jin-Kyoung Lim, Research of Success factors in small business Entrepreneurs, Hoseo Graduate School of Global Entrepreneurship Hoseo University, p.29, 2011.
[10] Chun-U Lee, "Study of the role of the the organization en Trapani peureo nyusip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Seoul doctoral dissertation,, p.37~42, 1999.
[11] Geum-Su Sin, The Empirical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Service Orientation and Venture's Success in Restaurant Business,Ph.D. Student, Department of Venture Management, Hoseo Graduate School of Venture, PP.49-52, 2007.
[12] Sik Heo, And many others, Analysis of the effect of start-up companies in job creation and economic growth., Chung-Ang University, p.13, 2012.
[13] Begley, T. M. and Boyd, D. P,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Performance in Entrepreneurial Firms and Smaller Business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 pp. 79-93, 1987.
[14] Bird, B. J, "Demographic Approaches to Entrepreneurship: The Role of Experience and Background," In J. A. Katz and R. H. Brockhaus(Eds.),Advances in Entrepreneurship, Firm Emergence, and Growth, Vol .1, Greenwich, Ct: JAIPress, pp.11-48, 1993.
[15] Box,T.M., White,M.A. and Barr, S.H., "A Contingency Model of New Manufacturing Firm Performanc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 pp.31-45, 1994.
[16] Gartner,W.B., "Some Suggestions for Research on Entrepreneurial Traits and Characteristic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14, pp.27-3, 1999.
[17] Vesper, K. H, New Venture Strategies,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1990.

이 미 자(Lee, Mi Ja)

- 2010년 2월 : 백석 문화대학교 컴퓨터정보과 (학사)
- 2013년 2월 : 호서대학교 글로벌 창업대학원 경영학과 졸업(석사)
- 2013년 3월 ~ 현재: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정보경영학과(박사 1기)
- 2006년 11월 ~ 2012년 4월 : (주)에스이제이 대표
- 2012년 4월 ~ 현재 : 예스산업(주) 관리이사
- 2013년 3월 : 평택 소상공인창업대학 학교 운영팀장
- 관심분야 : 창업컨설팅, 경영관리, 자금관리, 마케팅, 기업가정신. 소상공인 컨설팅,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 E-Mail : leemeem@naver.com

김 중 규(Kim, Jung Gyu)

- 1979년 2월 : 한양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학사)
- 1995년 8월 : 한양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석사)
- 2010년 2월 : 건국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학과 졸업(공학박사)
- 1979년 2월~1998년 12월 : 삼성전자 이사
- 1999년 6월~2003년 5월 : 현대정보기술 이사
- 2004년 9월~2006년 7월 : 동부정보기술 부사장
- 2007년 1월~2008년 12월 : 디비정보통신 사장
- 2012년 3월~현재: 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부교수
- 관심분야 : IT 창업, 컴퓨터정보통신, S/W프로젝트관리
- E-Mail : jgkimjg@yahoo.co.kr